



사쿠타로와 ‘음악’

‘나는 어렸을 때부터 병적일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다. 유년 시절에는 매일 오르골 장난감의 연주를 들었다. (중략) 소년 시절에는 손풍금^{*1} 과 하모니카만 연주하며 보냈다.’(‘음악에 대하여’)

음악대학의 입시까지 생각했다는 하기와라 사쿠타로는 구^{*2}제 중학교 시절에 당시 새로운 서양 악기였던 만들린을 손에 넣었습니다. 그리고, 상경 후 곧 히^{*3}루마 겐하치 등에게 연주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. 마에바시에 귀향한 후에도 만들린 연주 그룹을 조직하는 등 평생 음악을 즐겼습니다.

‘내 마음의 ‘슬픔’, ‘기쁨’, ‘외로움’, ‘두려움’, 그 외 단어나 문장으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특별한 감정을 나는 나의 시 리듬으로 표현한다’(“달에게 짓다” ‘서문’) 사쿠타로 시의 리듬감은 그의 음악 경험으로 길러진 것일지도 모릅니다.

*1 손풍금(아코디언)

*2 구제 중학교(현재의 고등학교 단계에 상당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로, 2차 세계대전 후 교육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존재했다.)

*3 히루마 겐하치(1867~1936 메이지·다이쇼 시기의 음악가. 일본 만들린 음악의 선구자)



사진 제공 : 마에바시 문학관